

## 사회비교에서 실패와 향상가능성에 따른 부적 자기정서의 경험

한덕웅<sup>1</sup> · 엄광은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경쟁상황에서 사회비교로 실패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사회비교의 대상, 수행환류 정보의 확실성, 그리고 장차 자기수행의 향상가능성에 따라서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 수준이 달리 형성되기 때문에 부적 자기정서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실험1에서는 자기보다 수행이 좋지 못한 하향비교 대상과 비교하여 확실하게 실패를 경험한 조건에서 다른 조건들보다 부적 자기정서의 경험이 가장 높다는 3원 상호작용 가설을 검증하여 지지되었다. 실험2에서는 하향대상과 사회비교하여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장차 자기수행이 향상될 수 없다고 믿는 조건에서 부적 자기정서의 경험이 가장 높다는 2원 상호작용 가설을 검증하여 지지되었다. 그러나 상향비교 대상과 비교하여 실패를 경험하지만 자기수행의 향상가능성이 낮은 조건에서는 부적 자기정서의 경험이 높았다. 이 결과는 상향비교에서 실패 경험과 낮은 향상가능성이 맞물릴 때 나타나는 역기능 현상으로 해석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를 필자와 공동연구자들이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논의하고, 본 연구의 한계와 장래 연구과제도 함께 논의하였다.

주제어 : 사회비교, 비교대상, 수행결과환류, 환류정보 확실성, 부적 자기정서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여러 기관이나 조직들에서 성원들의 경쟁심리를 고취하여 조직유효성을 높이려는 전략이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장차 한국사회에서 이 추세가 기업조직은 물론이고 공공조직까지 확대되고 심화되리라고 예측할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제도에 의해서 경쟁심리를 강요하고 있는 전형적 사례로는 공교육을 담당하는 중등교육 기관들을 들 수 있다. 특히 중등교육을 담당하는 고등학교에서는 대부분 학업의 수행을 기준으로 경쟁상황을 조성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회비교를 강요받는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사회비교 과정

은 한편으로 인간의 성장을 촉진하고 성공을 통해서 유능감과 성취감을 경험하는 순기능과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 실패를 경험함으로써 주관적 행복이나 긴장을 유발하는 역기능도 지닌다. 이 관점과 유사하게 Tennen, Mckee, 및 Affleck(2000)나 Buunk와 Gibbons(1977)는 사회비교에 따라서 개인의 행복이나 신체건강에 달리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그러므로 경쟁이 심한 사회상황에서 사회비교 과정을 통하여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을 경험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경쟁이 필요한 사회상황에서 인간의 복지

<sup>1</sup> 교신저자 : 한덕웅(110-745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번지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dwahn@dragon.skku.ac.kr)

를 향상시키거나 긴장을 경감시키는데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관점에서 사회비교 상황에서 실패를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심리현상을 정서반응에 초점을 맞추어서 알아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경쟁상황에서 사회비교하여 실패했을 때 자기에 관해서 부적 자기정서를 어느 조건에서 높게 경험하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필자와 공동연구자들의 선행연구(장은영·한덕용, 1999; 한덕용, 1999; 한덕용·장은영, 2000, 2001)에서 사회비교의 대상뿐만 아니라 사회비교의 목표와 성공/실패의 경험이 상호작용하여 사회비교의 대상 선택과 아울러 정서 경험도 달라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에서 경쟁을 유발하는 사회비교가 자주 나타나는 현상을 반영하고 비교대상, 환류의 확실성 및 자기수행의 향상 가능성에 따라서 어떤 조건에서 부적 자기정서를 가장 높게 경험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회비교를 통해서 실패하게 되면 창피함, 죄책감, 실망과 같이 개인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적 자기정서를 경험하게 되므로 자기정서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제를 다루기 위하여 실험1에서는 비교대상, 수행환류 및 환류의 확실성에 따라서 부적 자기정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비교 과정에서 비교의 대상과 유사한 수행을 보인 환류조건과 비교해서 실패했을 때 환류의 확실성 수준에 따라서 부적 자기정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실험2에서는 사회비교에서 확실한 실패환류정보를 받는 조건으로 한정하고 이 조건에서 사회비교의 대상과 자기수행의 향상가능성이 달라지면 부적 자기정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게 될 가설들이 도출된 이론의 배경을 독립변인들에 따라서 차례대로 살펴보고 상호작용 효과를 가정하는 근거도 함께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사회비교 과정에서 실패환류를 받게 되면 유사환류를 받았을 때보다 일상에서 개인이 성공을 기대하는 수준에 비해서 차이가 더 크다고 지각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논리에 따라서 사회비교의 결과로 실패환류를 받게 되면 유사환류를 받았을 때보다 부적 자기정서가 높다는 가설을 설정했다(가설1).

또한 사회비교에서 동일하게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사회비교의 대상에 따라서 부적 자기정서의 경험이 달라진다고 가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보다 못한 하향비교 대상과 비교하게 되면 유사비교나 상향비교 대상과 비교했을 때보다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를 높게 형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향비교하여 실패하게 되면 이 성공의 기대 수준에 어긋나게 큰 자기차이를 경험하게 되어서 부적 자기정서가 높다고 가정했다. 반면에 상향비교해서 실패한 조건에서는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낮으므로 비록 실패하더라도 이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아서 유사비교나 하향비교의 대상과 비교해서 이보다 성공의 기대가 높았던 조건보다 부적 자기정서의 경험이 낮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 논리에 근거를 두고 하향비교하여 실패환류를 받았을 때 비록 실패한 경험에서는 동일하지만 상향비교나 유사비교의 대상과 비교했을 때보다 부적 자기정서가 더 높다는 가설을 설정했다(가설2).

한편 사회비교 과정에서 긴장이나 초조와 같은 부적 자기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 가운데 하나로 불확실성을 들 수 있다. Festinger(1954)는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할 객관성 있는 기준이 없는 경우에 자기평가를 위해서 유사비교 대상과 비교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사회비교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다룬 연구들을 보면 개인이 주관으로 느끼는 불확실감을 다룬 경우가 많다. 만약 Festinger가 본대로 불확실성을 개인이 처한 상황을 객관성 있게 판단할 수 없어서 느끼는 불확실감으로 정의한다면 이 불확실성은 부적 자기정서로 경험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 관점과 달리 서로 다른 사회비교의 대상이나 수행결과의 환류정보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정적 혹은 부적 자기정서 경험을 각각 유발하는 조건들이 있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서 사회비교에서 성공환류를 받았을 때 그 환류가 확실하다면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기대 수준에 합치되거나 기대의 수준을 능가하는 결과를 경험하므로 정적 자기정서를 강하게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성공환류가 불확실하다면 성공에 따르는 정적 자기정서의 경험에서는 동일하더라도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가 모호하므로 정적 자기정서의 경험은 이보다 덜 강할 수 있다. 또한

이 논리에 따르면 실패환류를 받았으나 그 환류가 확실하면 자신이 사회비교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낮으므로 부적 자기정서를 강하게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실패환류를 받더라도 그 정보가 불확실하다면 성공의 기대가 모호하므로 부적 자기정서 경험은 이보다 덜 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패한 조건에서 부적 자기정서를 어느 정도 느끼는지 알아보려하기 때문에 이 근거에서 실패가 불확실할 때보다 확실할 때 자신이 성공을 기대한 수준이 크게 침해되므로 부적정서가 더 높다는 가설을 설정했다(가설3).

또한 실패환류를 받았을 때 사회비교 대상과 환류정보의 확실성에 따라서 부적자기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상호작용 효과가 예상된다. 상향비교하게 되면 자기보다 우수한 사람과 비교하므로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는 낮고 실패가 예측되는 상황이어서 비록 실패하더라도 부적 자기정서의 경험이 높지 않을 수 있다. 이 논리로 보면 비록 상향비교하여 실패한 조건이더라도 실패환류가 불확실하다면 성공의 기대를 더 낮출 근거가 불충분하여 장차 자신의 수행이 좋을 수도 있다고 기대할 수 있으므로 부적 자기정서의 경험이 낮게 된다. 이와 같은 논리로 보면 하향비교하게 될 때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는 높은 수준으로 형성된다. 이 조건에서 사회비교에서 실패했지만 실패환류가 확실하다면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와 차이가 크고 차이에 의심을 가질 수도 없기 때문에 자신이 장차 하향비교 대상과 비교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는 낮게 형성된다. 그러므로 이 확실한 환류조건에서 실패하면 성공의 기대가 낮아진다. 그러나 하향비교에서 실패환류가 불확실하다면 장차 자신이 사회비교에서 성공할 수도 있다고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성공의 기대는 높을 수 있다. 이 논리에 따라서 상향비교하거나 하향비교하여 실패한 조건에서 모두 실패의 환류가 불확실할 때보다 확실하면 부적 자기정서가 더 높다는 가설을 설정했다(가설4).

한편, 자기와 능력이 유사한 수준의 타인과 사회비교하는 과정에서는 실패하더라도 환류정보가 불확실하면 확실할 때보다 장래 자기수행의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부적정서가 더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실험2의 목적은 다음 두 가지이다. 먼저 실험1의 실패

조건에서 경험한 부적 자기정서가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반복해서 검증한다. 또한 본 연구의 관점에서 사회비교 과정에서 형성한 자기 성공에 대한 기대가 달라지게 되면 실패로 인해서 경험하는 부적 자기정서도 달라지는지 성공의 기대 수준을 높거나 혹은 낮게 형성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실험2에서는 실험1에서 확실한 실패환류 정보를 받은 조건으로 한정하고 자기수행의 향상가능성이 부적 자기정서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비교의 결과로 실패하게 되면 부적 자기정서를 경험하지만 자기수행의 향상가능성에 따라서 사회비교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가 달라지므로 부적 자기정서의 경험 수준이 달라진다고 가정했다. 다시 말해서 실패했을 때 자기수행의 향상가능성이 낮다고 지각하면 사회비교에서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낮아서 높은 부적 자기정서를 경험한다고 추론했다. 그러나 동일하게 실패를 경험한 조건이더라도 자기수행의 향상가능성이 높다고 지각하면 장차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서 낮은 부적 자기정서를 경험하게 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 추론에 따라서 실패했을 때 자기수행의 향상가능성이 낮으면 높을 때보다 부적 자기정서가 더욱 높다는 가설을 설정했다(가설5).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장 높은 부적 자기정서를 유발하는 상황으로 하향비교하여 확실성이 높은 실패환류 정보를 받은 조건을 예상했다. 이와 달리 비록 하향비교하여 실패하더라도 자기수행의 향상가능성이 높다면 장차 사회비교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으므로 향상가능성이 낮은 조건보다 부적 자기정서가 낮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하향비교하여 실패하고 향상가능성도 역시 낮다면 장차 사회비교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낮이므로 부적 자기정서를 더욱 높게 경험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 배경에서 하향비교하여 실패했을 때 자기수행의 향상가능성이 낮으면 높을 때보다 부적 자기정서가 더 높다는 상호작용 가설을 설정했다(가설6).

## 실험 1

### 방법

**피험자** : 성균관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수강하는 남녀

학생 188명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이 가운데 실험에서 독립변인을 잘 못 이해하거나 불성실하게 반응한 8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80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실험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은 실험 참가 점수를 받았다.

**실험설계** : 3(비교대상 : 상향/유사/하향)×2(사회비교 결과의 환류 : 유사/실패)×2(환류정보의 확실성 : 확실/불확실)의 3원완전무선요인설계였는데, 12개 각 조건에 15명씩 무선할당하였다.

**실험 절차** : 먼저 피험자들이 4인 1조로 실험실에 도착하면 실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4대의 컴퓨터 앞에 각각 1명씩 자유롭게 앉도록 하였다. 피험자 사이에는 칸막이를 두어서 피험자는 다른 참가자들의 컴퓨터 화면을 볼 수 없었다. 실험1과 실험2에서 모두 4명 실험 참가자들의 성별, 학과, 학년 등 구성성분을 통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실험에 함께 참가한 사람들에게 사회비교 대상이 어떤 학생인지 알려주지 않고, 모든 조건에서 자신이나 타인들의 수행 점수들을 동일하게 조작하여 제공하였으므로, 집단의 구성성분이 실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피험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지각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검사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소개하였다. 이어서 지각능력검사 과제를 수행하는 연습시행을 2분간 실시하였다.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경쟁상황과 유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각 실험실 안에 있는 4명의 학생들 가운데 가장 우수한 학생 한 명에게만 실험참가 점수 이외에 보너스 점수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연습시행에서 각자 얻은 수행 점수를 토대로 상향대상(연습시행에서 나보다 더 잘했던 사람), 유사대상(연습시행에서 나와 비슷했던 사람), 하향대상(연습시행에서 나보다 더 못했던 사람)중 한 명을 컴퓨터가 무작위로 선택하여 본시행이 끝난 후 이 사람과 비교하여 점수를 알려준다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본과제를 4분간 실시하였다. 그 다음 자신과 타인의 수행을 비교하여 실험 조건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 환류를 각각 조작하고, 이 환류정보를 제공할 때 각 조건별로 환류정보의 확실성 수준도 함께 조작하였다. 다음으로 부정 자기정서를 측정하였다. 끝으로 조작점점 문항 및 부가 질문들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수행과제** : 장은영과 한덕웅(1999)의 연구에서 사용

한 컴퓨터 지각능력과제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과제는 한 쌍으로 구성된 글자나 기호들이 컴퓨터 화면의 좌우에 짧거나 혹은 긴 시간 동안 나타났다가 사라진 후에, 두 그림판이 서로 같으면 “O”키를 누르고, 다르면 “X”키를 누르도록 구성되어 있다.

#### 독립변인 조작

**비교 대상의 선정** : 본시행에 앞서 실험실에 온 4명의 학생들 가운데 본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사람들 중에서 컴퓨터가 무선으로 선택해 준 사람과 비교하여 본시행의 수행 점수를 알려준다고 설명하여 사회비교 대상을 조작하였다. **수행상향비교 대상 조건**에서는 컴퓨터가 무작위로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연습시행에서 자신보다 더 잘 수행했던 사람과 본시행 점수를 비교하게 되었다고 알려주었다. **유사비교 대상 조건**에서는 연습시행에서 자신과 비슷한 수행을 보인 사람과 본시행 점수를 비교하게 되었다고 알려주었다. **하향비교 대상 조건**에서는 연습시행에서 자신보다 더 못했던 사람과 본시행 점수를 비교하게 되었다고 알려주었다.

**수행 결과의 환류** : 본시행이 끝난 다음 개인의 수행 결과를 비교 대상의 득점과 비교하여 알려주어서 조작하였다. 구체적으로 본시행 전에 피험자들에게 컴퓨터가 무작위로 선택해 준 대상과 비교하여 몇 점 차이가 나는지 그림을 함께 제공하여 알려주었다. **유사환류조건**에서는 컴퓨터가 무작위로 선택해 준 대상과 비교한 결과를 보면 자신이 비교 대상보다 5점이 낮지만 이 점수 차이는 통계적 오차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비슷한 수준이라고 알려주었다. **실패환류조건**에서는 컴퓨터가 무작위로 선택해 준 대상과 비교한 결과를 보면 자신이 비교 대상보다 20점이 낮으며 이 점수 차이는 통계적 오차 범위를 벗어나므로 크게 차이를 보였다고 알려주었다. 이 정보를 제공한 후에 컴퓨터가 정해 준 비교 대상과 본인의 수행 점수차이를 다시 확인하도록 조작하기 위해서 그래프로 그려서 보여주었다.

**수행결과 환류의 확실성** : 확실성은 본시행 시간 4분을 1분 단위로 세분하여 시간별 점수의 변화로 조작하였다. **확실조건**에서는 당신이 얻은 점수들이 시간별로 차이가 작으며 전반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어서 당신의 지각능력에 대해서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알려

주었다. 불확실조건에서는 당신이 얻은 점수들이 시간 별로 차이가 크며 전반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아서 당신의 지각능력에 대해서 확실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없다고 알려주었다.

### 종속변인 측정

**부적 자기정서의 측정** : 본시행으로 지각능력검사를 실시하고 난 후 개인이 실험에서 경험한 부적 자기정서의 경험을 종속변인으로 측정하였다. 부적 자기정서 용어들은 강혜자와 한덕용(1997)이 한국어 정서용어들을 다차원분석하여 얻은 용어들 가운데 자기정서들로서 경험 강도가 큰 용어들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부적 자기정서를 측정하는데 사용한 형용사들과 요인부하량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걱정스럽다(.47), 괴롭다(.69), 당혹스럽다(.45), 무기력하다(.60), 부끄럽다(.69), 무능감(.75), 불만스럽다(.63), 불쾌하다(.63), 불행하다(.63), 슬프다(.65), 실망스럽다(.63), 안타깝다(.47), 열등감(.70), 우울하다(.78), 좌절감(.70), 짜증나다(.59)'의 총 16개를 사용했다.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각 정서 용어들이 현재 자신이 느끼는 기분을 얼마나 잘 나타내고 있는지 그 정도를 9점척도(1 : 전혀 느끼지 않는다부터 9 : 매우 많이 느낀다까지)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신뢰도를 Cronbach의  $\alpha$  계수로 산출하였는데 .91이었다.

이 용어들이 부적 자기정서로 정의된 1개 구성개념으로 잘 묶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SAS를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은 공통변량의 초기값을 중다상관자승(SMC)으로 하는 주축분해법으로 얻었다. 이 결과로부터 탐색요인분석을 통해서 얻은 한 요인 모형에 자료가 잘 부합되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확인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의 자료로는 상관행렬을 이용하였다. 이 결과를 보면 요소간 평균잔차(RMR)는 0.084로서 좋은 부합의 기준인 0.05보다 다소 컸으나, 기초부합치(GFI), 조정부합치(AGFI) 및 표준부합치(NFI)는 좋은 부합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0.90보다 모두 높아서 한 요인 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되었다(RMR=0.084, GFI=0.97, AGFI=0.96, NFI=0.95, NNFI=0.98). 따라서 이 부적 자기정서 요인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높은 수렴타당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부적 자기정서의 측정을 위한 종속측정치는 이 16개 부적 자기정서

를 평정치를 개인별로 평균하여 제시한다. 이 점수가 높을수록 부적 자기정서가 높음을 의미한다.

## 결과 및 논의

**독립변인의 조작효과 점검** : 먼저 사회비교 대상의 조작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습시행 후에 컴퓨터가 임의로 선정하여 당신과 본 시행 결과를 비교했던 사람은 당신에 비해서 연습시행의 성적이 어땠습니까?”로 물어보았다. 실험에 참가한 모든 피험자들이 자신의 비교대상을 실험 조건별로 조작한대로 정확히 기억하였다. 또한 “연습시행을 근거로 컴퓨터가 무선으로 선정해 준 사람과 비교하면 당신의 연습시행 점수는 어떠하였습니까?”를 물어서 9점척도(1 매우 많이 못했다부터, 5 비슷했다, 9 매우 많이 잘했다)에 평정하였다. 이 평정 자료를  $3 \times 2 \times 2$ 로 변량분석한 결과에서도 상향(M=3.01), 유사(M=4.78), 하향(M=6.11) 비교대상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  $F(2, 168)=9.46, p<.001$ . Scheffe 검정 결과에서 이 세 비교 대상의 평정치가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수행결과의 환류**를 조작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컴퓨터가 선택해 준 사람과 당신은 본수행에서 몇 점 차이가 났습니까?”를 물었다. 이 확인 결과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이 모두 조건대로 기억하였다. 또한 “컴퓨터가 정해준 사람에 비해서 당신의 본시행 점수는 어느 정도입니까?”를 물어서 9점척도(1 매우 많이 못했다부터, 5 비슷했다, 9 매우 많이 잘했다)에 평정하였다. 이 평정 자료를 변량분석한 결과에서도 환류의 주효과만 유의하여,  $F(1, 168)=175.30, p<.001$ , 유사환류조건(M=4.27)보다 실패환류조건(M=2.45)에서 자신의 수행이 더 낮다고 보았다.

**환류정보의 확실성**은 “당신은 본시행에서 단위 시간 당 점수의 차이가 얼마나 일정하게 유지되었는가?”를 물어서 9점척도(1 매우 불확실하다, 9 매우 확실하다)에 평정하였다. 이 평정 자료를 변량분석한 결과에서도 확실성 수준에 따른 주효과만 유의하였다,  $F(1, 168)= 29.19, p<.001$ . 즉, 확실조건(M=4.88)에서 불확실조건(M=3.84)보다 참가자들이 자신의 지각능력 점수가 확실하다고 믿는 수준이 높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세 독립변인들

의 조작은 모두 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부적 자기정서 경험**: 16개 부적 자기정서 평정치들의 평균을 구한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이 자료를 3(비교대상: 상향/유사/하향)×2(사회비교 결과의 환류: 유사/실패)×2(환류정보의 확실성: 확실/불확실)로 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사회비교 대상에 따라서 부적 자기정서 평정치들을 변량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회비교 대상과 환류정보의 주효과가 각각 유의하였다. 즉, 상향비교 대상과 비교하였을 때( $M=3.65$ )보다 하향비교 대상과 비교하였을 때( $M=4.58$ ) 부적 자기정서를 더 높게 경험하였다,  $F(2, 168)=8.99, p<.001$ . 또한 유사환류를 받았을 때( $M=3.86$ )보다 실패환류를 받았을 때( $M=4.36$ ) 부적 자기정서를 더 높게 경험하였다,  $F(2, 168)=7.56, p<.01$ . 이 결과들은 가설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비교대상과 수행결과 환류의 2원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F(2, 168)=1.02, n.s$ , 환류와 확실성의 2원상호작용은 유의하였다,  $F(2, 168)=3.04, p<.08$ . 사회비교대상과 수행결과 환류의 단순주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상향비교하여 실패환류를 받은 조건과 하향비교하여 실패환류를 받은 조건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향비교하여 실패환류를 받았을 때( $M=4.07$ )보다 하향비교하여 실패환류를 받았을 때( $M=4.78$ ) 부적 자기정서가 더 높게 경험되지 않아서 가설2는 기각되었다. 한편 동일하게 실패환류를 받더라도 환류 정보가 확실한 조건( $M=4.57$ )에서 불확실한 조건( $M=4.15$ )보다 부적 자기정서가 높다는 가설3은 지지되었다.

그러나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비교대상×환류×확실성의 3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여,  $F(2, 168)=3.69, p<.02$ , 이 가설이 어느 조건에서 지지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3원 상호작용 효과를 알기 쉽게 보이면 그림1과 같다. 이 사회비교 대상×환류×확실성의 3원 상호작용 효과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결과의 실패/유사 환류조건별로 세부 분석하였다. 유사환류를 받은 조건에서는 상향비교, 유사비교 및 하향비교 대상에 따라서 확실성과 불확실성 조건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실패환류를 받은 조건에서는 상향비교, 유사비교 및 하향비교 대상과 비교했을 때 수행결과의 환류정보가 지나는 확실성과 불확실성에 따라서

부적 자기정서의 경험이 달리 나타났다. 단순주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상향비교하여 실패환류를 받게된 조건에서는 환류가 불확실할 때( $M=3.43$ )보다 확실하면( $M=4.71$ ) 부적 자기정서를 더 높게 경험하였다,  $F(2, 168)=8.30, p<.01$ . 또한 하향비교하여 실패한 조건에서는 수행결과의 환류 정보가 불확실할 때( $M=4.56$ )보다 확실하면( $M=5.01$ ) 부적 자기정서가 더 높은 추세를 보였다,  $F(2, 168)=2.19, p<.10$ . 본 연구에서는 하향비교하여 실패환류의 정보가 확실할 때( $M=5.01$ )는 불확실할 때( $M=4.56$ )보다 부적 자기정서를 더 높게 경험하게 되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예측하였다. 이 가설4는 지지되었다.

그런데 상향비교하여 확실한 실패환류를 받은 조건( $M=4.71$ )에서는 하향비교하여 확실한 실패환류를 받은 조건( $M=5.01$ ) 수준으로 부적 자기정서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 결과로부터 동일하게 사회비교에서 실패하더라도 상향비교할 때보다 하향비교한 경우에 부적 자기정서의 경험이 높다는 본 연구의 가설2가 확실한 실패환류를 받는 조건에서만 지지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상향비교에서 확실하게 실패하게 될 경우에 초래되는 부정적 효과가 크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상향비교하여 성공하면 자신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상향비교하여 확실하게 실패할 때는 부적 자기정서를 높게 경험하게 되어서 역기능 효과가 매우 크다. 이 결과는 상향비교하게 되면 자신이 실패할 수 있다는 예측이 불가피하지만 확실한 실패가 초래하

표 1. 부적 자기정서 경험 평정치들의 평균(표준편차)

비교대상	유사환류			실패환류			
	확실	불확실	전체	확실	불확실	전체	전체
상향비교	2.98 (1.20)	3.48 (0.95)	3.23 (1.10)	4.71 (1.43)	3.43 (1.18)	4.07 (1.44)	3.65 (1.34)
유사비교	4.04 (1.28)	3.98 (1.20)	3.98 (1.22)	3.98 (1.16)	4.47 (1.05)	4.22 (1.12)	4.10 (1.17)
하향비교	4.26 (1.15)	4.50 (1.36)	4.38 (1.25)	5.01 (1.15)	4.56 (1.27)	4.78 (1.21)	4.58 (1.24)
전체	3.76 (1.31)	3.97 (1.23)	3.87 (1.27)	4.57 (1.30)	4.15 (1.25)	4.36 (1.29)	4.11 (1.30)

는 부정적 의미가 부각되어서 부적 자기정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표 2. 부적 자기정서 경험 측정치의 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자유도	지승합	평균지승합	F	$\omega^2$
비교대상(A)	2	26.08	13.04	8.99***	.26
수행환류(B)	1	10.97	10.97	7.56**	.30
환류확실성(C)	1	0.44	0.44	0.31	.00
비교대상*수행환류(A*B)	2	2.96	1.47	1.02	.00
비교대상*환류확실성(A*C)	2	2.49	1.24	0.86	.00
수행환류*환류확실성(B*C)	1	4.41	4.41	3.04*	.11
비교대상(A*B*C)*환류*확실성	2	10.71	5.35	3.69*	.15

\*  $p < .10$ , \*\*  $p < .05$ , \*\*\*  $p < .001$

### 실험 2

실험1에서는 사회비교의 대상, 수행결과의 환류 및 환류정보의 확실성이 부적 자기정서에 달리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실험2는 다음 두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먼저 사회비교 과정에서 확실한 환류정보에 의해서 실패를 경험한 상황으로 한정하여 비교 대상에 따라서 실패환류가 부적 자기정서에 미치는 효과가 실험1에서 얻은 결과와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반복하여 검증한다. 한편 자기의 수행이 향상될 수 있다는 기대가 높

아지는 조건에서 부적 자기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봄으로써 본 연구에서 가정하는대로 자신이 사회비교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면 부적 자기정서의 경험이 낮아지는지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이 실험에서는 서론에서 제안한 가설2, 가설5 및 가설6을 검증한다.

### 방법

**피험자** : 성균관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수강하는 남녀 학생 91명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독립변인을 조작한 지시문을 잘못 이해하여 불성실하게 응답한 1명을 제외하고, 90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모든 학생에게 실험참가 점수를 주었다.

**실험설계** : 실험 1에서 사회비교를 통해서 확실한 실패정보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한정하고 3(비교대상 : 상향, 유사, 하향) × 2(향상가능성 : 높다, 낮다)의 2원 완전 무선요인설계를 사용하여 6개 실험 조건마다 15명씩 무선할당하였다.

**실험절차** : 본시행까지 절차는 실험 1과 동일하였다. 본시행이 끝난 후 확실한 실패정보의 환류는 실험 1의 확실한 실패정보 환류조건과 동일하게 조작하였다. 이 사회비교의 결과를 제시할 때 자기와 비교 대상의 수행 차이 점수도 실험 1과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제시하여 개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환류정보를 제공하고 난 후 예비수행에서 개인수행이 시간에 따라서 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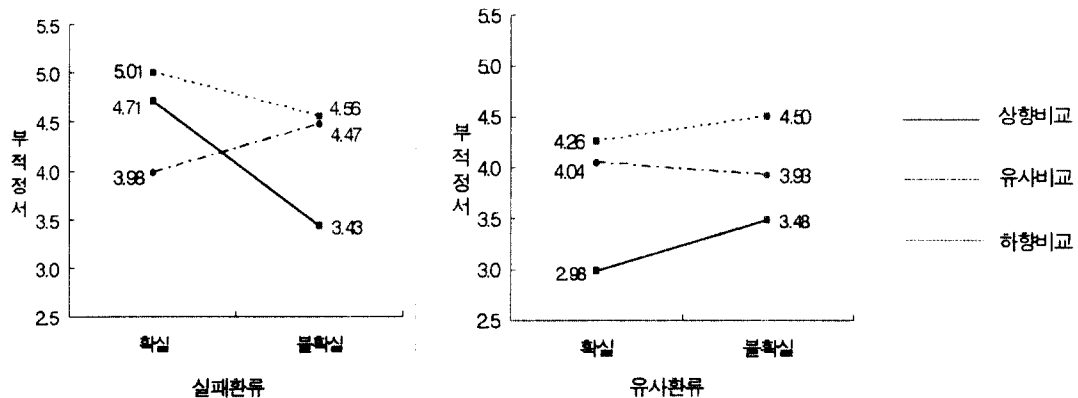


그림 1. 비교대상, 환류 및 환류의 확실성에 따른 부적 자기정서

화되는 형태를 분석한 결과에 근거를 두고 각자의 수행이 향상될 가능성을 산출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자신의 수행이 좋아질 수 있는 향상가능성을 높거나 낮은 두 수준으로 조작하였다. 이어서 종속변인으로 부적 자기정서를 실험1과 동일하게 측정하고, 끝으로 조작점점 문항 및 부가 질문들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수행과제** : 실험 1과 동일하였다

#### 독립변인의 조작

① 비교대상 : 실험 1과 동일하게 상향비교, 유사비교 및 하향비교 대상으로 조작하였다.

② 향상가능성 : 본시행 4분을 1분 단위로 세분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신의 수행 점수가 향상되고 있는지 아니면 점차 떨어지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수행 점수들과 함께 수행이 변화된 모습을 도표를 제시하여 조작하였다. **향상가능성이 높은 조건**에서는 점수를 1분 단위의 시간으로 세분하여 살펴본 결과를 보면 수행이 점차 향상되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이 조작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 연구들을 사용하여 이 점수를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 경향을 보이는 학생들 가운데 대략 70%가 다음 시행에서 점수가 더욱 향상되었다. 따라서 한번 더 시행한다면 당신의 점수가 매우 향상되리라고 예상한다고 알려주었다. **향상가능성 낮은 조건**에서는 점수를 1분 단위의 시간으로 세분하여 살펴본 결과를 보면 점수가 떨어지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기존 연구들을 사용하여 이 점수를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 경향을 보이는 학생들 가운데 대략 30%만 다음 시행에서 점수가 조금 향상되었다. 따라서 한번 더 시행하더라도 당신의 점수는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리라고 예상한다고 알려주었다.

#### 종속변인 측정

부적 자기정서 측정은 실험 1과 동일하였다.

#### 결과 및 논의

**독립변인의 조작효과 점검** : 먼저 **비교대상**의 조작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서 “연습시행 후 컴퓨터가 임의로

선정하여 당신과 본시행 결과를 비교했던 사람은 당신에 비해서 연습시행 성적이 어땠습니까”를 물었다. 실험에 참여한 모든 피험자들이 실험 조건대로 비교대상을 기억하였다. 이와 아울러 “연습시행에서 컴퓨터가 임의로 선정해 준 비교 대상과 비교해서 당신의 연습시행 점수는 어떠하였는지”를 물어서 9점척도에 평정하였다. 이 평정 자료를 변량분석하여 얻은 결과를 보면 비교대상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  $F(2, 84)=59.24, p<.001$ . Scheffe검증의 결과에서도 상향비교 대상( $M=6.33$ ), 유사비교 대상( $M=4.67$ ), 및 하향비교 대상( $M=3.27$ )간에 차이가 각각 유의하여 비교대상의 조작은 성공적이었다. 한편 자기수행의 **향상가능성**을 조작한 효과를 보면 우선 실험 참가자들이 본시행에서 단위 시간으로 세분하여 수행의 변화로 볼 때 향상가능성이 높거나 혹은 낮다고 제공한 정보를 모두 정확히 기억하였다. 또한 “본시행에서 당신의 수행 점수를 시간 단위로 살펴보았을 때 어느 정도 향상되는지”를 9점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9 매우 많이 향상되었다)에 평정하였다. 이 평정 자료를 변량분석한 결과에서 향상가능성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  $F(1, 84)=207.68, p<.001$ . 다시 말해서 향상가능성이 높은 조건( $M=6.11$ )에서 낮은 조건( $M=2.40$ )보다 자기수행이 향상되었다고 지각했다. 따라서 자기수행의 향상가능성 조작도 잘 이루어졌다.

**부적 자기정서의 경험** : 부적 자기정서의 평정치를 사용하여 개인별 평균을 구하고 각 실험조건별로 평균을 구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고, 이 자료를 3(비교대상 : 상향/유사/하향)×2(향상가능성 : 높다/낮다)로 2원 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에 따라서 중요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1과 마찬가지로 비교대상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아서 가설2는 기각되었다,  $F(2, 84)=1.61, p<.20$ . 즉, 상향비교 대상과 비교하여 실패했을 때 보다( $M=4.21$ ) 하향비교 대상과 비교하여 실패한 조건( $M=4.82$ )에서 부적 자기정서가 더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향상가능성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실패하여 향상가능성이 높을 때( $M=4.24$ ) 보다 실패하여 향상가능성이 낮을 때( $M=4.74$ ) 부적정서를 더 높게 경험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F(1, 84)=3.21$



$p < .07$ . 따라서 가설5는 지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셋째, 비교대상×향상가능성의 2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F(2, 84)=3.66, p < .03$ . 이 상호작용 효과를 알기 쉽게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하향비교 또는 유사비교한 두 조건에서는 실패했을 때 향상가능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상향비교하여 실패했을 때는 이와 달리 향상가능성이 높을 때보다 낮을 때 부적 자기정서가 더 높았다. 단순주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하향비교 대상과 비교한 조건에서는 향상가능성이 높을 때( $M=4.69$ )와 낮을 때( $M=4.95$ )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1, 84)=0.29, n.s$ . 따라서 가설6은 기각되었다.

표 3. 부적 자기정서 측정치의 평균(표준편차)

비교대상	향상가능성		전 체
	낮 음	높 음	
상향비교	4.98 (1.37)	3.44 (1.52)	4.21 (1.62)
유사비교	4.30 (1.07)	4.58 (1.57)	4.44 (1.33)
하향비교	4.95 (1.37)	4.69 (1.06)	4.82 (1.21)
전체	4.74 (1.29)	4.24 (1.48)	4.49 (1.41)

표 4. 부적 자기정서 측정치의 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합	F	$\omega^2$
비교대상(A)	2	5.78	2.98	1.61	.03
향상가능성(B)	2	5.78	5.78	3.21†	.15
비교대상*향상가능성(A*B)	2	13.16	6.58	3.66*	.15

†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그러나 상향비교 대상과 비교한 조건에서는 동일한 실패환류를 받았지만 향상가능성이 높을 때( $M=3.44$ )보다 낮을 때( $M=4.98$ ) 부적 자기정서를 유의하게 더 높게 경험하였다,  $F(1, 84)=9.91, p < .002$ . 이 연구 결과들로부터 자기보다 우수한 사람과 사회비교하는 조건에서만 자기수행의 향상가능성이 높으면 낮을 때보다 낮은 부적 자기정서를 경험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 종합논의

**부적 자기정서의 경험** : 종합논의에서는 먼저 본 연구의 두 실험을 통해서 얻은 중요한 결과들을 정리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쟁 상황에서 타인과 비교하는 조건에서 성공이나 실패의 환류, 환류정보의 확실성, 자기수행의 향상가능성이 부적 자기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수행의 성공에 대한 기대에 따라서 부적 자기정서의 경험이 달라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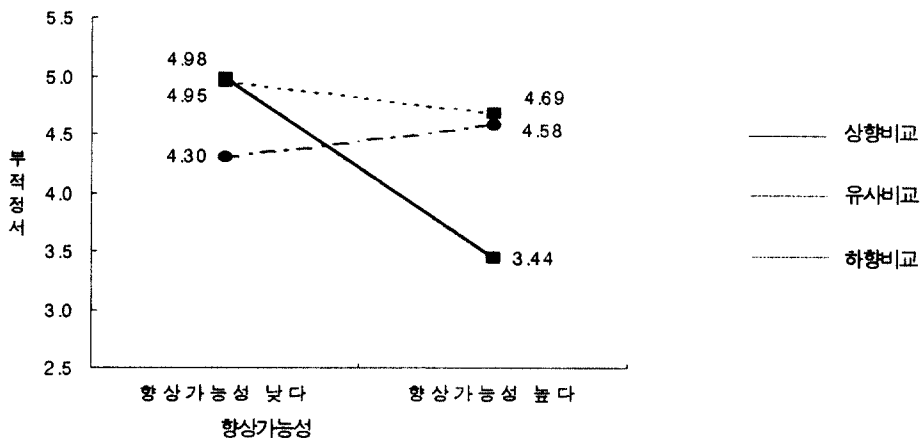


그림 2. 비교대상과 향상가능성에 따른 부적 자기정서

다고 가정하였다. 실험 1에서는 비교 대상, 환류, 확실성이 부적 자기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실험 2에서는 실패환류 조건으로 제한하여 사회 비교의 대상과 향상가능성이 부적 자기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비교의 결과에 관한 환류정보가 부적 자기정서의 경험 수준에 영향을 미쳤다. 유사환류를 받았을 때보다 실패환류를 받았을 때 부적 자기정서가 더욱 높게 유발되었다. 둘째, 비교 대상과 환류가 상호작용하여 부적 자기정서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하향 대상과 비교하여 유사했을 때 상향 대상과 비교하여 유사했을 때보다 부적 자기정서가 더 높았다. 셋째, 환류정보의 확실성과 관련된 결과를 살펴보면 유사환류를 받은 조건에서는 상향비교, 유사비교 및 하향비교 대상에 따라서 확실성과 불확실성간에 부적 자기정서를 유발한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실패환류를 받은 조건에서는 상향비교 및 하향비교의 대상과 각각 비교한 모든 조건에서 확실성과 불확실성 조건간에 부적 자기정서의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조건을 보면 상향 비교하여 불확실한 실패환류를 받았을 때보다 상향비교하여 확실한 실패환류를 받았을 때 부적 자기정서가 매우 높았다. 넷째, 향상가능성이 부적 자기정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향상가능성이 높을 때보다 낮을 때 부적 자기정서가 높은 추세가 나타났다. 특히 상향비교하여 실패했지만 향상가능성이 낮으면 높을 때보다 부적 자기정서를 더 높게 경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자기수행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대의 형성 효과:** 본 연구에서는 능력을 기준으로 사회비교하게 되면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일정한 기대 수준을 형성한다고 가정했다. 그러므로 사회비교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요인들은 부적 자기정서를 높인다고 가정했다. 이 성공기대의 가정을 근거로 비록 동일한 사회비교의 실패라고 하더라도 비교 대상, 실패 환류의 확실성 및 자기수행의 향상가능성에 따라서 부적 자기정서가 달라진다는 가정을 검증했다. 여기에서는 실험1과 실험2에서 얻은 결과들이 사회비교 상황에서 형성한 자신의 성공 가능

성에 대한 기대에 의해서 일관되게 설명되는지 논의하기로 한다.

실험1에서 확실한 실패환류조건만 보면 사회비교의 대상에 따라서 경험한 부적 자기정서의 수준이 달랐다(상향비교 4.71, 유사비교 3.98, 하향비교 5.01). 유사비교 대상과 비교하여 확실하게 실패한 조건(3.98)에 비해서 하향비교(5.01)나 상향비교(4.71)할 때 부적 자기정서의 수준이 높았다.

실험 2의 결과를 보면 역시 확실한 실패정보를 받은 상황에서 사회비교 대상에 따라서 부적 자기정서의 수준이 달라졌다. 자기수행의 향상가능성 변인에 따라서 구분하지 않는다면 전체로는 하향비교(4.82), 유사비교(4.44), 상향비교(4.21)의 순서대로 부적 자기정서의 수준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도 사회비교 대상에 따라서 이 순서로 부적 자기정서가 높다고 예상했다. 그런데 자기수행의 향상가능성 수준에 따라서 나누어 보면 비교 대상에 따라서 나타난 전반적 추세와 다른 점을 볼 수 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1에서 확실한 실패 환류정보를 받은 조건을 불확실한 환류정보를 받은 조건과 비교하여 부적 자기정서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자. 상향비교 대상과 비교해서 불확실하게 실패한 조건에서는 부적 자기정서가 확실한 실패조건보다 낮았다(3.43). 이 조건에서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회비교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본 기대 수준이 비교적 변화없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향비교하여 확실한 실패환류를 받게되면 부적 자기정서가 매우 높았다(4.71). 상향비교조건에서는 자신보다 능력이 좋은 사람과 비교하므로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 수준이 낮는데 확실한 실패 환류정보에 의해서 이 기대마저 침해된 조건이다. 이 조건에서 장차 자신이 상향 비교하여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는 처음보다 낮아졌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조건에서 하향비교하여 확실하게 실패한 조건(5.01)에 가깝게 높은 부적 자기정서를 경험했다.

따라서 실험1과 실험2의 여러 조건들 가운데 자기수행의 성공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 부적 자기정서를 높게 경험하는 조건을 찾을 수 있다. 이 조건에서는 비교 대상에 따라서 부적 자기정서 수준이 일관되게 달랐다. 실패환류를 받은 조건에서 부적 자기정서가 높았던 비

교 대상을 차례대로 보면 실험1에서 하향비교 대상(확실 환류정보, 5.01, 불확실 환류정보, 4.56, 평균 4.78), 유사비교 대상(확실 환류정보, 3.98, 불확실 환류정보, 4.47, 평균 4.22) 그리고 상향비교 대상(확실 환류정보, 4.71, 불확실 환류정보 3.43, 평균 4.07)의 순서였다. 실험 2에서는 사회비교 대상에 따른 부적 자기정서의 차이가 자기수행의 향상가능성이 높은 조건(상향, 3.44, 유사, 4.58, 하향, 4.69)에서만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도 하향비교, 유사비교 및 상향비교 대상의 순서로 부적 자기정서가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실험1에서 얻은 사회비교 대상의 효과와 일관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두 실험 결과로부터 적어도 사회비교에서 확실하게 실패환류 정보를 받은 조건에서 자기수행의 성공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기 때문에 부적 자기정서가 하향비교, 유사비교 그리고 상향비교의 순서로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기수행이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에 따라서 부적 자기정서가 달라지는지 매개효과를 직접 검증하지 않았다. 필자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비교 대상의 선택이나 자기정서를 다른 한덕용과 공동연구자들의 연구에서 사회비교의 목표, 행동통제력, 성공환류 등의 변인들 역시 사회비교 과정에서 형성된 자기수행의 성공 기대 수준을 매개로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래 연구에서는 사회비교 상황에서 형성한 이 기대 요인이 매개과정으로 작용하여 여러 종속변인들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장래 연구의 과제** : 앞에서는 본 연구의 두 실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에 제시하는 몇 가지 한계를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제한이 된다. 여기서는 그 가운데 장래 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들을 중심으로 이 한계점들을 논의한다. 첫째, 실험 1에서 유사/실패 환류정보를 조작할 때 직접 자신의 득점을 제시하지 않고 비교 대상의 수행과 비교하여 차이 점수를 제공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집합상황에서 직접 대면하여 비교하지 않고 익명으로 사회비교가 이루어진 상황을 다루었다. 그러므로 장래 연구에서는 직접 대면하여 사회비교하는 상황에서 본인의 점수를 직접 제공하여 수행결과에 관한 환류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연구해 볼 필요

가 있다. 둘째, 본 연구 결과는 능력 차원에만 일반화할 수 있다. 개인이 사회비교하는 차원은 능력 뿐만 아니라 매력과 같은 신체적 특징, 성격 등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이 변인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능력 차원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유발되는 정서가 역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장래 연구에서는 능력 이외에 다양한 차원에서 사회비교하게 될 때 어떤 자기정서를 경험하게 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상향비교 대상과 관련하여 유의한 결과들이 나타났다. 이 결과는 대학생이 상향비교의 동기와 아울러 자존심이 높은 집단이기 때문에 이 특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한덕용과 공동연구자들의 연구(장은영·한덕용, 1999; 한덕용, 1999; 한덕용·장은영, 2000)결과들을 보면 대학생들은 성장동기가 높은 젊고 지적 수준이 높은 계층이기 때문에 상향비교 대상을 선택하는 백분율이 높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상향비교 조건에서 확실하게 실패하거나 자기능력의 향상가능성이 낮을 때 부적 자기정서가 높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래 연구에서는 대학생 이외에 다른 대상을 다루어서 본 연구와 일관되는 결과가 나타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부적 자기정서를 측정하기 위하여 16개 정서용어들을 사용하였는데, 장차 여러 사회비교 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 경험들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사회비교에서 경험하는 정서들은 비교의 대상이나 성공/실패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사회비교에서 경험하는 정서 경험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초기 단계이다. 이 가운데 Smith(2000)가 제안한 자기정서 연구는 이 주제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는 하향비교와 상향비교에서 성공하거나 실패했을 때 경험하는 정서들을 비교 대상과 대비시킨 정서들과 동화시킨 정서들로 구분한 바 있다. 이 분류에 따르면 하향비교할 때 자기에 대해서 느끼는 대비정서로는 우울이나 수치 등을 다룰 수 있고, 동화정서로는 낙관, 경탄, 고무 등을 연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상향비교할 때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대비정서로는 자부심, 혐오, 비난, 열등감, 자기고양 등을 들었다. 그리고 이 조건에서 경험하는 동화정서로는 걱정, 두려움, 연민,

동정 등을 들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Smith의 제안은 실증연구의 근거가 없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회비교 과정을 자기정서의 관점에서 연구하려면 장차 한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자기정서 경험들을 포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를 토대로 비교 대상이나 사회비교의 성공/실패 경험을 통해서 경험하는 공통 정서와 특수한 정서들을 알아낼 수 있다. 또한 사회비교를 통해서 경험하는 정서들은 자기정서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회비교를 통해서 자기, 비교 대상, 관계 및 비교 상황에 대해서 달리 경험하는 정서들을 가려내어서 여러 연구 목적에 적합한 측정 도구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덕용과 장은영은 이 주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여러 제한점들을 지니지만 사회비교 과정을 통해서 높은 부적 자기정서를 경험하는 조건을 알아내고 장래 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한데 의의가 있다.

### 참 고 문 헌

장은영 · 한덕용(1999). 비교 대상의 선택에서 환류유형, 비교속성 및 통제감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01-217.

한덕용(1999). 사회비교의 목표설정과 성공/실패 경험에 따른 비교 대상의 선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311-329.

한덕용 · 장은영(2000). 사회비교의 목표, 대상 및 성공/실패에 따른 자기정서의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3), 109-123.

한덕용 · 장은영(2001). 내집단과 개인의 수행 환류가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167-183.

Buunk, B. P., & Mussweiler, T.(2001). New direction in social comparison research.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1, 467-475.

Buunk, B. P., & Gibbons, F.(1997). *Health, coping and well-being : Perspectives from social comparison theory*. Hillsdale, NJ : Erlbaum.

Smith, R. H.(2000). Assimilative and contrastive emotional reactions to upward and downward social comparisons. In J. Suls & L. Wheeler(Eds.), *Handbook of social comparison : Theory and research*(ch. 10, 173-200). NY :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Suls, J. M., & Wheeler, L.(Eds.)(2000). *Handbook of social comparison : Theory and research*. NY : Kluwer Academic/ Plenum Publishers.

Taylor, S. E., Wayment, H. A., & Carillo, M.(1996). Social comparison, self-regulation, and motivation. In R. A. Sorrentino & E. T. Higgins(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 The interpersonal context*. NY : The Guilford Press.

Tennen, H., McKee, T. E., & Affleck.(2000). Social comparison process in health and illness. In J. Suls & L. Wheeler(Eds.), *Handbook of social comparison : Theory and research*(ch. 21, 443-483). NY : Kluwer Academic/ Plenum Publishers.

##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Comparison and Self-relevant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s**

**Doug-woong Hahn and Kwang-eun Eom**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ocial comparison targets, failure feedback, certainty of the feedback and probability of improvement upon self-relevant negative experiences. It was hypothesized that certain failure feedback from that downward social comparison would make the most stressful emotions than those in any other experimental conditions. It was also hypothesized that the negative effect of the certain failure feedback in downward comparison would be moderated by the perceived probability of improvement in one's own performance. In the present paper two laboratory experiments were performed in order to testify the above hypothesi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se hypothesis were supported. The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the previous studies published in abroad and Korea and the implications for future study were also suggested.

**Keywords** : social comparison, comparison targets, performance feedback, feedback certainty, negative self-emotions

원고 접수 : 2002년 6월 30일  
심사 통과 : 2002년 8월 3일